

2 외국인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투자 환경¹⁾

- (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투자 환경) 한국 대기업의 핵심사업이나 수출 주력 사업, 공기업, SOC 등은 잠재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은 부문임. 그러나 구조 조정이 미흡하고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지 않아 투자 유인 강도가 낮음
- (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)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과 함께 회계와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, 경영상의 각종 위험에 대하여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

□ 한국 경제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 - 외국인의 관점

- (부실 기업 또는 기업군의 핵심 사업 부분) 한국 기업의 핵심사업 부문은 대체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세계 일류 수준임. 부실 사업 부분을 조속히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핵심 사업 부분의 가치는 급속히 상승함
- (수출 주력 업종이나 수출 주력 사업 부분)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더구나 경상비에서 外貨 지출 비중이 낮고 원貨 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채산성 전망이 아주 밝음
- (해외 자회사나 기타 해외 자산) 해외 자회사나 해외 자산은 국내 기업이나 국내 자산에 비하여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적음
- (공기업과 SOC 지분 투자)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임. 공기업 민영화와 SOC 민자 건설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함
- (일부 부동산-상업용 건물)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 기미가 없어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반면, 대도시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음
- (특허권 등 지적재산권)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잠재 가치가 높은 투자 대상이지만 국내 제도와 관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.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벽한 보호장치가 필요하고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가 필요함

1) <편집자 註> 외국인 투자 환경으로서의 한국 경제의 장단점을 최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설명회, 투자유치설명회 등에서 발표되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. 여기서 의미하는 외국인 투자는 주식, 채권 등 금융자산의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라기보다는 지분 소유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, 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가리킨다.

□ 한국 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기회 요인 - 외국인의 관점

- (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)

- 중시 침체와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 기업의 시장 가치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음
-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부분과 우량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우량 부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
- 부동산,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음

- (외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다)

- “외국 자본만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”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음
- 김대중 대통령이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음

- (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)

-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의 처리가 가시화될 것임
-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
- 노사정 합의로 노사관계 및 임금 협상에서의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되었음

- (생산 요소가 우수하다)

- 높은 교육수준과 위기의식으로 무장된 노동력이 풍부함
- 주요 업종에서의 생산 capacity가 충분하며 설비도 노후되지 않았음
-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보유
- 우수한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하여 선진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과 접목 가능

□ 한국 경제에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 요인 - 외국인의 관점

- (구조조정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다)

-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부실한 부분과 우량한 부분이 분리되지 않음
-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서로 악순환 유발

- (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)

-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관의 규제와 비효율은 여전한
- 외국인 투자자의 고용 조정을 노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시됨
-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회계장부 작성상의 관행과 과세 과정에서는 국제 기준과 차이 발생함

- (기업 경영권이 제한되어 있다)

- 완전한 M&A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.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
- 50%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주주의 권한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징후가 없음

- (외부 환경이 가변적이다)

-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
-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악화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남북관계 및 북한의 정치적 상황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함

- (환율,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이 미흡하다)

-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 수익성 산정에 애로가 있음

□ 한국 경제에 투자시 지켜야되는 원칙 - 외국인의 관점

- (회계의 투명성 점검) 현재의 회계장부를 신뢰하지 말고 지급보증, 담보 설정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
- (현금 흐름 중시) 한국 기업은 대체로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 비용 부담이 과도하므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해야 함
- (경영 일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점검) 협력업체와의 관계 및 기존 제휴선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사관계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함
- (퇴출의 용이성 보장)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파산, 정리 및 투자 회수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함

□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

- (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) 부실 부문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함께 투자자금 유입후 재무 상태 개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
- (회계 및 경영 정보의 투명성 제고) 미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며, 경영상 협력업체, 제휴선과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시켜 주어야 함
- (내재 위험에 대한 솔직한 인정)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대방에게 인지시켜야 함
- (안정된 노사관계 유지)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사 분류 가능성임

(조 흥 래 hrjo@hri.co.kr ☎724-4056)